

# 당권 주자들 우군 확보 경쟁... 여야, 전당대회 본격화

### 국힘, 텃밭 찾아 지지 호소

### 민주, 최고위 후보 친명 마케팅

### 당원 표심 얻기 총력전

26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당의 최대 표밭인 영남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외부 활동을 줄이며 당 안팎의 상황을 살폈다.

국민의힘 한동훈·나경원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TK) 출신 의원 보좌진과 TK 지역인론 모임인 '보리모임'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한 후보는 27일 이철우 경북지사,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나 후보 역시 이날 박완수 경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한다. 부산 사하, 경남 창원에서도 당원협의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나 후보는 지난 21일 홍준표 시장과 이 지사를 만났고 지난 22일 경북 상주·문경, 경산, 구미 당협을 방문한 바 있다.

원희룡 후보는 전날 이 지사를 만난 데 이어 이날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면담한다. 전남 경북 안동·상주·칠곡·구미·김천에 이어 이날 대구 달서 지역 당원들과도 만난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인천·강원지역 출마자의 의

견을 듣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주자들의 '당심 공략'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원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현직 의원 등 '우군'을 확보하는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당규는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대표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권 주자들은 현역 의원들의 보좌진을 캠프에 파견하는 형태로 우회적인 지지를 얻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정된 분위기 속에서 당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이 당원들 표심을 얻기 위해 친명을 앞세우고 있다.

최근 들어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이나 SNS 글을 보면 이 전 대표가 빠지지 않는다.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라고 적었고, 강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창출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전현희·한준호 의원 등 추가로 최고위원 도전이 점쳐지는 후보군 역시 SNS에 이 전 대표의 사진을 함께 게시해 '명심(이 전 대표 의중)' 경쟁에 합류했다.

'친명 마케팅'은 이 전 대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현상이지만, 정작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부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최고위원으로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지, '이 전 대표와 가깝다'는 얘기만 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전 의원이 CBS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전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에 도움이 되는지 우려스럽다"며 "당 대표를 계속하면 진영에 가둬진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는 대표 선거 출마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정치적 행보와 메시지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따가운 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로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에 참모인 것으로 자리한 임택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민형배 "헌재는 광주·대법원은 대구 이전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은 26일 김용민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일찍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분산돼 있다.

대구 4·19혁명이 시작했던 곳으로 역사성을 지닌 곳이다. 민 의원은 광주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며 "권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밤의 시기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주철현 "경로당 점심 식비·냉난방 국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26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인건비 등 식사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경로당이 자체 부담해 왔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총복 단양군 한 경로당은 월 11만5000원을 지원받지만, 경기 부천시의 경로당은 한 달에 최소 3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주5일 점심식사'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무 지원 대상에 식사제공 인건비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어르신자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의 운영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주 의원은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방송 3법' 처리 반발...법사위원장 제소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대해 "단독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2개 상임위(법사·국토교통위)에서 간사 선임도 시켜주지 않고, 법사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원장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이재명 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악법"이라며 "협의를, 대화, 토론, 타협이란 국민이 명령한 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전대 선관위위원장에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8·18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이춘석 의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호남 4선인 두 사람은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후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전국당원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잘 발휘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준위 부위원장은 위성곤·이수진 의원이, 선관위 부위원장은 김정호·임오경 의원이 각각 맡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